**하나님의 고통 / 데이빗 윌커슨**

****

최근 제게 주님의 어떤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겔1832. 이는 내가 죽는 자의 사망 안에서 아무런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돌이켜, 너희는 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을 때 - 심지어 사악한 사람이 죽을 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다! 나는 어떤 죄인의 타락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배반자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노라!"고 하시며

의기양양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약 밀매자 또는 낙태 의사, 심지어 살인자의 죽음이나 파멸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 죄로 죽을 때 행복해 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주님이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는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 당신은 그 사악한 자를 다루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난감함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저와 타임 스퀘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협동 목사님에 대해

비방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섭고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잠1909. 거짓 증인은 처벌 받지 않지 않느니라, 거짓들을 말하는 그는 소멸되느니라.

잠1704. 사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거짓된 입술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장이는 품행이 나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잠1113. 고자질쟁이는 비밀들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나 신의가 두터운(진실한) 영(靈)에 속하는 그는 일을 숨기느니라.

잠2626. 그의 증오는 속임수에 의해 덮여 있으나,

그의 사악함은 전체 회중 앞에서 보여지느니라.

얼마 후, 저는 절망에 빠져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언제나 지나가겠나이까?

거짓말은 너무도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날마다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자신의 자녀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주님 -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

제가 이 고통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지요?"

제게 오는 이 모든 비난에 대해 생각할 때,

저를 괴롭히는 다른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동역자와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동원시켜

모함하고 대적시키는 사탄의 방해로 무시무시한 시련을 견디고 있는

참으로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지요, 주님?"

 "주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주님은 왜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를 아프게 하시는지요?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십니까?"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데이빗, 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비롭고 오래 참으며 노하기를 더디 하느니라.

네가 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너는 결코 내가 심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왜 심판하는데 그렇게도 오래 기다리는지를

이해할 것이다!"라고 응답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 소문과 험담을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에 있습니다.

저를 압박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르짖기를 "오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심판하지 마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부디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심판하기를 내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마도 15분 가량 제 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므로 네 자녀를 벌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이다. 이것은 내게도 마찬가지란다.

심판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내게는 고통스럽구나!"

마침내, 하나님은 제게 저를 벌하셔야 하는 매순간

참고 견디시는 주님의 고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엄히 벌을 받아야 했던 4, 5차례의 경우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저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떤 것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나 또한 이것을 다시금 겪고 싶지 않았다.

네가 아프게 하는 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이것은 나를 슬프게 한단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아픔이구나!"

하나님은 제가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벌하실 때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잠2417. 네 적(敵)이 넘어지면, 기뻐하지 말라,

또 그가 비틀거리면, 네 마음으로 반가워하게 허용치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좋아하지도 말며

주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비탄에 잠기기전 그가 채찍을 치시면서

우시는 주님 앞에서 좋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의 마음도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충분합니다! 부디 제발 주님의 사자가

그의 검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히1211. 지금 아무런 제재(응징)가 없는 것이 당분간 즐거워 보이나, 통탄할 일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은, 그것에 의해 훈련 받은 자들에게 '법적 깨끗함'의 평온한

열매를 내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징계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잇따라서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채찍질이 눈물이 나게 하는지 어떤지를 보시고자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회개와 비탄의 아주 작은 표시라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처음보이는 하나의 암시만으로도 징계를 그치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하십니다,

"됐다! - 그 이상의 것은 없다! 이것은 내게 너무 고통스럽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 주님,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리에 있는 가장 사악하고 지독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당신의 원수가 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리 멀어져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의 멸절을 기뻐하지도 않으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이것은 너무나도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가 7:18-19).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할렐루야!

Tags

하나님 나라